

‘카타르의 감동’ 한국 축구, 이제 4년 후 도전은 계속된다

조별리그 1차전 우루과이전서 인상적 경기력
2차전 가나에 일격...그래도 조규성 앞세워 추격
3차전 포르투갈전서 예상 못한 극적인 역전승
16강전 ‘우승후보’ 브라질 못 넘었지만 희망 엿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브라질전을 끝으로 감동적인 드라마를 마무리했다. 극적인 경기로 온 국민을 감동시켰던 대표팀은 이제 4년 후를 기약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24일 대회 첫 경기를 치렀다. 대표팀은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우루과이와 대회 H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전후반 90분 동안 득점 없이 0-0으로 비겼다.

우루과이에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레알마드리드에서 세계 최고 수준 미드필더로 성장한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버티고 있었다. 이적료 1300여억원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 리버풀에 합류한 다윈 누녜스도 있었다.

여기에 2010 남아공월드컵에서 한국을 16강에서 떨어뜨렸던 수아레스와 카바니 등 노련한 공격수들까지 포진해 있어 한국이 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4년 간 같고닮은 실력을

바탕으로 우루과이를 압도했다. 한국은 패스를 이어가고 세컨드볼을 탈취하면서 공 소유권을 놓지 않았다. 우루과이 감독이 한국 공을 뺏기 쉽지 않았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벤투 감독이 주장해온 빌드업 축구가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우루과이전은 무승부로 끝났다. 상대가 골대를 여러 번 맞히는 등 위기가 있었지만 대체로 한국이 경기를 주도해 이길 만했다는 평이 많았다. 아쉬운 점은 골을 넣지 못해 승리를 놓쳤다는 점이었다.

벤투호의 실력을 목격한 축구팬들의 기대가 고조되는 가운데 조별리그 2차전 가나전이 지난 28일 열렸다.

대표팀은 경기 초반부터 가나를 몰아붙였다. 우루과이전 초반처럼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질 듯 한 분위기에 한국 축구팬들은 들쭉했다. 방심은 금물이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미드필더 조던 아예우가 날카로운 크로스로 2골을 만들었다. 조던 아예우가 문전으로 띄운 공은 모하메드 살리수와

모하메드 쿠두스를 통해 한국 골문을 뚫었다.

경기를 포기할 법도 했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다. 조규성이 헤더로 잇달아 2골을 터뜨리며 기적적으로 동점이 됐다. 승리의 여신이 한국 쪽을 향해 웃음을 짓는 듯 했지만 상황은 곧 바뀌었다. 가나는 한국 측면을 돌파한 뒤 문전으로 공을 연결했고 쿠두스가 또 다시 골망을 흔들었다.

가나전 패배로 1부1패가 된 한국은 좌절할 것으로 보였지만 대표팀은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포르투갈을 이기고 가나가 우루과이에 적은 점수를 내주면서 질 경우 한국이 2위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 있었다.

포르투갈은 역시 강했다. 지난 3일 열린 조별리그 3차전에서 포르투갈은 한국 측면을 뚫으며 경기 초반 손쉽게 선제골을 넣었다. 포르투갈은 16강전에 대비해 주전을 대거 빼고도 후보들끼리 매끄러운 공격 작전을 수행하며 골을 넣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다. 한국은 계속해서 포르투갈 진영으로 전진하며 공격을 이어갔고 김영권이 코너킥에서 동점골을 터뜨렸다.

조별리그의 대미는 주장 손흥민이 장식했다. 후반 들어 무리한 드리블로 득점 기회를 날렸던 손흥민은 후반 추가 시간 단독 질주 후 절묘한 침투 패스를 황희찬에게 전달했다. 허벅지 부상을 안고도 출전한 황희찬은 교체 투입 후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



다. 같은 시간 가나와 우루과이 간 경기도 열리고 있었다. 우루과이가 2-0으로 앞선 채 경기가 마무리되고 있었다. 그대로 경기가 끝나면 한국이 우루과이에 다득점에서 앞서 16강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루과이가 1골만 더 넣어도 우루과이가 16강에 진출하는 상황이었다.

이미 16강 탈락이 유력했지만 가나는 끝까지 싸웠다. 가나는 2010 남아공월드컵 8강에서 우루과이에 막혔던 아픈 기억이 있었다. 가나는 자신들이 16강에 못 갈지언정 우루과이가 16강에 오르는 꼴은 볼 수 없다는 자세

로 경기를 치렀다. 결국 경기는 2-0 그대로 끝났고 한국이 극적으로 16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러한 16강전은 한국 입장에서는 보너스였다. 우승 후보 브라질과 상대하게 됐지만 벤투 감독도 선수들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떤 팀이든 이길 수 있다는 정신무장이 된 한국은 맹렬하게 맞섰다. 체력적인 열세 속에 1-4로 대패했지만 한국은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공수 조직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축구를 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뉴시스

‘유럽행’ 의욕 활활...조규성 “더 도전하고 싶다”

한국 선수 최초로 월드컵 본선 한 경기에서 2골 기록...“4년 뒤 더 기대됨”

2022 카타르 월드컵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떠오른 조규성(24·전북)이 더 넓은 무대를 향한 꿈을 드러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에 1-4로 졌다.

이로써 한국의 이번 월드컵 도전은 16강에서 막을 내리게 됐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거둔 수확으로 조규성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달 24일 조별리그 1차전 우루과이전에서 교체 투입돼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 조규성은 잘 생긴 얼굴로 단번에 스타로 떠올랐다.

출중한 외모 만큼이나 뛰어난 실력도 발휘했다. 조규성은 지난달 28일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에서 선발로 출전해 멀티골을 터뜨렸다. 한국 선수가 월드컵 본선 한 경기에서 2골 이상을 기록한 건 조규성이 처음이다.

한국 대표팀의 차세대 골잡이로 확실한 인상을 남긴 조규성은 “당연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이번 대회는 그런 마음뿐인 것 같다”고 대회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루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한 꿈도 커졌다.

조규성은 “남미, 유럽 선수들과 부딪혀 보니 더 도전해보고 싶다. 어디든 가서 해보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솔직히 큰 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성장해서 이런 선수들과 한번 더 해보고 싶다”고 유럽행을 향한 의욕을 드러냈다.

조규성은 조별리그 공중볼 경합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상대편과 해도 되네?”라는 생각이 들더라. 이런 부분을 더 발전시키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첫 월드컵은 조규성에게 더 강한 동기부여를 남겼다. 조규성은 “처음으로 월드컵을 뛰어봤는데, 4년 뒤가 더 기대된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뛰어보니 흥분되기도 하고, 기대도 된다. 매일 월드컵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사람들도 환호하고, 항상 이런 분위기면 축구가 진짜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며 눈을 빛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는 벤투 감독은 선수들에게 “4년 동안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너희는 대단한 선수다. 4년 동안의 시간을 잊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감독님께서 끝나고 선수들 한명 한명과 악수를 사셨다. 눈물이 났다”는 조규성은 “너무 슬펐다. 벤투 감독님과 코치님들이 안 계셨더라면 나는 지금 이렇게 되지도 못했을 거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뉴시스



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스타디움 974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브라질과 대한민국의 경기, 한국 백승호가 질주하고 있다.

돌고 돌아온 백승호, 브라질전 골맛 본 6번째 선수

스페인 명문 바르셀로나 유스팀 출신...지나해 전북 유니폼 입고 국내무대 복귀

출격 명령만 기다렸던 백승호(25·전북)가 월드컵 데뷔전에서 골맛까지 봤다.

백승호는 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브라질과 경기에서 0-4로 끌려가던 후반 31분 강력한 중거리슛으로 만회골을 넣었다. 긴 기다림 끝에 강렬한 존재감을 알린 순간이다.

백승호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대표팀에 승선, 첫 월드컵을 준비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룬 꿈이다.

이승우(수원FC)와 함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명문 바르셀로나 유스팀 출신인 백승호는 ‘한국 축구의 미래’로 불렸다.

그러나 스페인, 독일을 거치는 동안 유럽 무대에 적응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전북 현대 유니폼을 입고 국내로 돌아왔다.

국내 최고의 구단에서 주전 미드필더로 자리를 잡은 백승호는 지난해 전북의 K리그 5연패와 올해 대한축구협회(FA)컵 우승을 견인했다. 최종 엔트리 관문을 통과하고도, 월드컵 데뷔의 꿈은 쉽게 손에 닿지 않았다.

백승호는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벤치에서 지켜보고, 이날도 선발 명단에서 빠졌다.

기회는 막판 찾아왔다. 파울루 벤투 한국 대표팀 감독은 후반 20분 황인범을 빼고 백승호를 투입하며 분위기 전환을 노렸다.

사령탑의 기대에 부응한 백승호는 곧게 뻗

혀있던 브라질 골망을 흔들었다. 세트피스 찬스에서 상대 수비수가 헤더로 견어낸 공을 잡은 뒤 과감한 왼발 중거리 슛을 성공시켰다.

백승호의 골로 이날 유일한 득점을 올린 한국은 브라질에 1-4로 패해 8강 도전이 무산됐다.

아쉬운 결과지만 ‘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월드컵 데뷔전에서 골을 넣었다는 것만으로도 백승호에게 의미가 있는 경기다.

백승호는 경기 후 “2002년 월드컵을 보면서 축구를 시작했다. 딱 20년이 지난 올해 월드컵에 데뷔하고, 골도 넣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고 부모님께도 감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브라질을 상대로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 것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팀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차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골도 넣게 됐다”고 말했다.

득점 장면을 두고는 “기회가 되면 슈팅을 하려고 했는데, 운 좋게 앞에 떨어졌다. 또 굴절되면서 운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패배로 한국과 브라질의 상대 전적은 1승7패가 됐다. 압도적인 패배가 보여주듯 브라질전에서 골맛을 본 선수도 백승호까지 총 6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전까지 김도균, 김도훈, 설기현, 안정환, 황의조가 브라질을 상대로 득점했다.

첫 월드컵 성공적으로 치른 이강인 “선수·팀 모두 발전토록 노력할 것”

카타르 월드컵 4경기 모두 출전
“매일 성장하는 선수 위해 노력”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매 경기마다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준 이강인(마요르카)이 선수가 물론 팀 단위로 좀 더 발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브라질과 같은 강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강인은 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전에 후반 교체 출전해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결국 한국은 1-4로 패했다.

비록 월드컵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이강인은 첫 월드컵에서 매 경기마다 중형루진 활약하며 성공적인 데뷔를 마쳤다.

이강인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선수마다 또



팀으로서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브라질은)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은 나라이고 좋은 팀, 좋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모든 점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이강인은 자신의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그는 다음 월드컵 준비를 묻는 질문에 “제가 몇 번을 더 나갈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이제 월드컵은 이제 4년이 남았기 때문에 월드컵보다는 최대한 매일 날마다 더 발전하는 선수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인 팀에 도움이 되려는 선수로 남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날 경기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보여준 개인기에 대해서 “매 경기마다 팀에 항상 도움이 되려고 하지 (개인기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강인은 첫 월드컵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형들과 너무 너무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다”라며 “너무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느꼈기 때문에 선수로서 더 발전한 것 같고 앞으로 더 발전해서 언젠가는 더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